

국토교통부,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10.20.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5, 기초 226)
근거	「건축법」 제78조 제4항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②건축 관련 안전관리 ③유지·관리의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 노력
방법	내·외부 전문가(내부 1, 외부 4)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일반 부문의 경우 올해 최우수 지자체에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상남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되었다. 또 대구광역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별 부문은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 사례'를 공모한 결과로, 총 16개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강원도와 동해시를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한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해시는 '망상해변 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와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